

# “계속 두리번거리는 게 우리들의 삶” 패턴의 재해석

“저희 아버지(이강하 화가)는 화가였다. 저는 어찌 보면 아버지 영향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전시를 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작가라면 누구나 이 하정웅미술관 청년 작가 초대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 다 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전시이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난해 말 초대작가로 결정됐는데 이번 전시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조흠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지난 5일 개막, 오는 8월 2일까지 'S.O.S'(Shiny Object Syndrome)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청년작가초대전 주인공으로, 전시 개막에 앞서 밝힌 소감이다.

타이틀인 'S.O.S'는 구조 신호로서 '사

## 광주시립미술관 선정 청년작가 이조흠 초대전 'S.O.S' 타이틀로 8월 2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설치·조각·회화...“엄청 많은 성장 보여준 전시”

이니 오브젝트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을 뜻하는 단어다. 쉽게 풀어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들에 쉽게 현혹되는 그 증후군을 의미한다. 작가는 지금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수많은 정보, 사진, 텍스트, 물건 등 이런 것들에 항상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좇는 그 과정 자체가 현대인들이 자아를 찾는 과정 중의 하나로 인식한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허무하며 세속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작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광주 학동 다이소를 갔던 경험을 먼저 들려줬다. 물건들을 샀지만 웬만한 것들은 모두 집에 있었음에도 두리번거리는 자신

을 발견했다. 그 두리번거림에 대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더 뭔가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거기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행위라고 귀띔했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저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살 게 없는 데 그냥 와서 테이블 뒤편이었으니 살까, 아니면 좀 더 사 놓을까 이러면서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두리번거리는 행위가 모두 'S.O.S'는 아닐테고, 생명에 대한 구조 신호 또한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냥 정서적인 어떤 구조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어찌 보면 기존에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들, 아울러 캐나다 프로젝트와 독일 뮌헨 레지던스 과정을 거친 뒤 집중했던 '어둠 속에서 두리번 거



이조흠 작가

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 사람들은 문자의 형태나 어떤 패턴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자신이 말하는 'S.O.S'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작업으로 꼽는다.

이번 전시는 설치, 조각, 회화 등이 출품된 가운데 1층 세 전시실과 야외에서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제1전시실에서는 일상 사물을 3D 스캔하고 재조합해 구조체를 형성하는 작업들이자, 개별 요소가 축적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작품 'net'은 서로 연결된 얼굴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반응하는 시선의 구조를 통해 현대인의 분산된 감각과 자아 형성을 시각화한다.

이어 제2전시실에서는 'collective' 시리즈를 중심으로 캐릭터 이미지와 반복된 얼굴 형상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형되는 구조를 다루고 있으며, 제3전시실에서는 타이틀이 된 세 개의 벽을 활용해 작가의 내면과 감각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 야외 잔디광장에는 기본 도형인 세모, 네모, 동그라미 형태로 제작된 철 조각작품 '3 types of human'이 설치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구조를 이야기한다.

특히 2024 캐나다 북극 프로젝트의 '미러고굴' 프로젝트 작업은 이번 전시 눈길을 끌었다. 작가는 "캐나다 북극 킥가이트(아우이트) 원주민들을 만날 당시 시력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눈부서 그들이 착용한 고글을 본 것을 활용해 2000개가 넘는 고글을 제작해 내걸었다. 길이는 쿠광에서 구매했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앞쪽에서는 반사돼 보이지만 뒤쪽은

검정색으로 형상이 비치지 않는 형태로 제작됐다. 작품 'net'은 검은 화면 위 흰 선의 군상을 통해 탐색하며 이동하는 시선의 상태를 보여준다. 하나의 형상만 눈이 꿈쩍거리며 움직임을 표하지만 나머지는 움직임을 표하지 않는다.

그 움직임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 혼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이다. 제2전시실의 'collective'는 장난감 캐릭터들에 태양열 자기판을 장착해 빛에 의해 움직이며 합성소리가 내뿜어 있어 가까이 가면 그들의 소리가 들린다. 동굴 안에 수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캐릭터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돼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다.

윤익 관장은 “청년작가초대전에는 광주에서 내로라 하는 작가들이 모두 거쳐갔다. 웬만큼 이름있는 작가들은 초대전 작가로 작품을 선보였다”면서 “이 작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작품들로 예전에 봤던 작품들과는 달리, 엄청 많은 성장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방직공장에서 기후위기까지

### 광주, 세계사로 읽는 인문 강연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3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글빛마루정원에서 인문·독서 기획프로그램 '지역, 예술을 읽다' 첫 번째 강연을 연다.

'광주라는 교차점: 화석경제의 식민주의적 지도를 읽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시 '봄의 선인'의 '석탄 백탄 타는데: 면(綿)-탄(炭)-기(機)'와 연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서는 서동진 제원예술대학교 교수는 광주 임동 방직공장을 동아시아 화석자본주의와 식민주의적 조건이 응축된 세계사적 공간으로 해석하며 자본과 노동, 예치자, 식민주의가 교차한 역사를 조망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후위기는 현재의 의제와 연결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행사는 전시 영상 하이라이트 상영, 세계사적 연결망을 주제로 한 강연, 소책자 사료 읽기, 지역사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강연을 위해 지역 출판사 윤터강과 협력해 인문 아카이브 소책자 '광주통신'도 발간한다. 전시의 문체와 기록을 기록과 텍스트로 정리한 책자로, 강연 연계 도서와 함께 현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 내외다. 참가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홍보물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황해운 기자 nabi@gjdream.com

## 세계로 뻗어가는 ACC 공연...해외서 잇단 '러브콜'

### 2022년 이후 미디어 판소리 등 16개 창·제작 해외 진출 5·18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영국 에든버러서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독창적인 창·제작 공연들이 세계 무대에서 잇따라 호평받으며,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CC는 지난 2022년 조직 통합 이후 창·제작은 ACC, 유통은 ACC재단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해외 무대에 진출했거나 진행 중인 ACC 창·제작 공연은 총 16개 작품에 달한다. 현대무용 5편, 연극 5편, 어린이 공연 3편, 다원예술 2편, 미디어 판소리 1편 등 장르도 다양하다.

해외 투어의 선두 주자는 김경신 안무의 현대무용 '호모루피엔스'(2021년 작)다. 이 작품은 미국 시애틀 국제무용제(SIDF)를 비롯해 프랑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주요 무용 플랫폼에 초청되며 ACC 해외 유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허성임 안무의 '1°C'(2025년 작)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

인다. 지난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초연 직후 영국 3개 도시 극장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오는 7월 세계적 공연예술 축제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ACC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2020년 작, 윤시중 연출)은 글로벌 어워드 수상으로 작품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7월 세계 최대 규모

의 공연예술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아트 어워즈'를 거머쥐었으며,

같은 해 9월 한·중·일 대표 연극제인 '베세토(BeSeTo) 페스티벌'의 한국 대표작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한국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ACC 미디어 판소리 '두 개의 눈'이 대만 현지에서 호평받아 한국 전통예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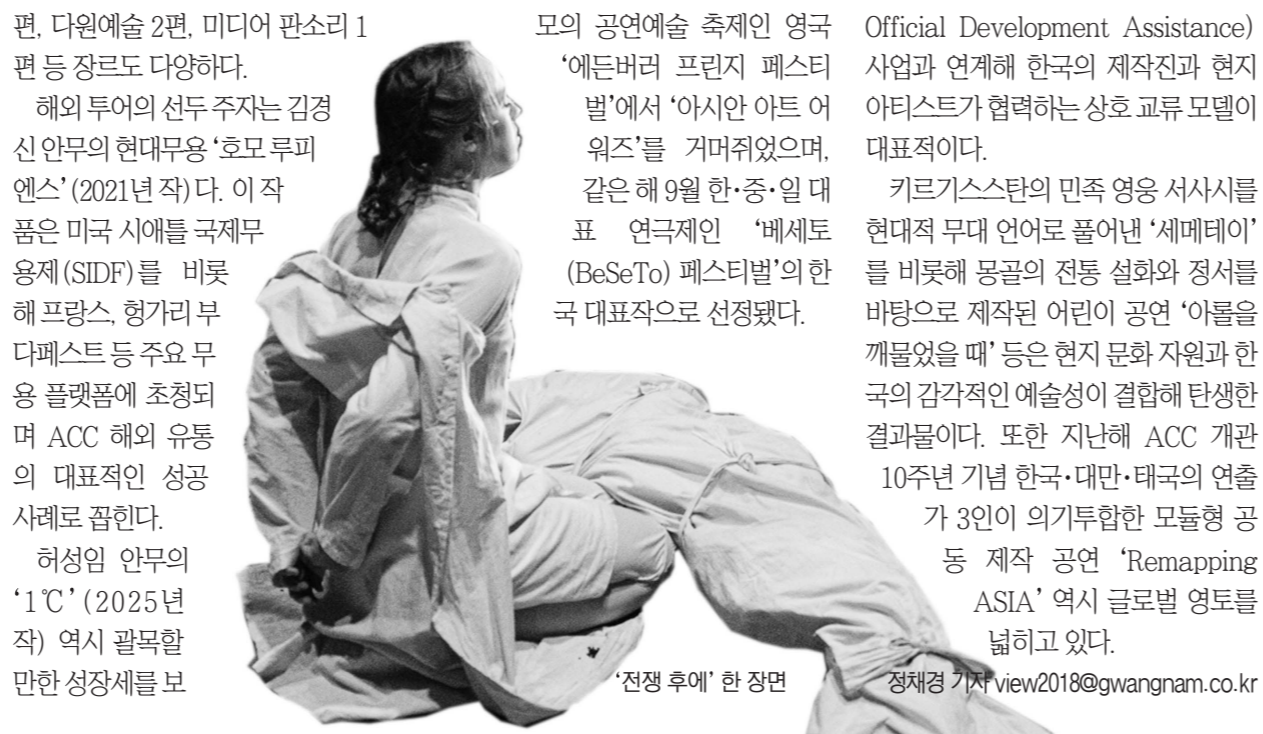
대만 대표 국립 공연기관인 국립전통예술센터의 초청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지난 2021년 초연 이후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선보여온 작품이다. 특히 '호'라는 보편적 정서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제작 작품의 해외 진출은 현지와 유기적인 '공동제작'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연계해 한국의 제작진과 현지 아티스트가 협력하는 상호 교류 모델이 대표적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중 영웅 서사시를 현대적 무대 언어로 풀어낸 '세메데이'를 비롯해 몽골의 전통 설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어린이 공연 '아름을 깨물었을 때' 등은 현지 문화 자원과 한국의 감각적인 예술성이 결합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또한 지난해 ACC 개관 10주년 기념 한국·대만·태국의 연출

가 3인이 유기투입한 모듈형 공동 제작 공연 'Remapping ASIA' 역시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쟁 후에' 한 장면

### 토요일 무등산 자락서 울려 퍼질 동서양 앙상블

### 광주문화재단 토요일상설무대, 내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열 번째 토요일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해금·대금의 시김새 위에 첼로·피아노·퍼커션의 화성과 성음을 더한 융복합 앙상블로, 밤의 정서와 시간의 흔적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무대를 꾸밀 연주단체 협동조합 효성은 지난 2021년 광주를 기반으로 창립된 전문 연주자 중심의 예술단체로, 클래식 앙상블 활동을 토대로 지역 공연예술의 저변 확대와 장르 융복합 기획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악기와 서양악기, 성악적 요소가 어우러지는 창작 공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선보이는 '달빛이 스미는 결'은 '달빛이 비추는 밤의 결을 따라 스며드는 감정의 흐름을 음악으로 그린다'는 방향으로, 9곡의 창작 레퍼토리를 하나의 서사로 엮는다.

공연은 진향이 번지듯 문을 여는 '스미는 빛'에서 출발해, 해금과 바이올린의 떨림으로 밤의 긴장을 그리는 '밤의 결', 성음과 가야금이 고요히 어우러지는 '달의 숨'으로 이어진다.

말하지 않는 감정을 해금 선율로 풀어내는 '납겨진 말', 장구와 퍼커션의 절제된 리듬 위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는 '흔적 뒤를 걸다'를 거쳐, 국악기·서양악기·성음의 흐름으로 결합하는 피날레 '달빛이 스미는 결'로 마무리된다. 이같은 무대로 전통 선율과 현대적 음향이 어우러진



깊이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통문화관은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라는 소책자 아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 전통놀이 체험, 농악공연 및 타악체험, 한복 체험 등이 마련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다. 체험과 공연 관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대화용 타월이 제공된다.

한편, 전통문화관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공연 운영도 확대하고 있다. 공연 정보와 곡 해설은 디지털 배너를 통해 다국어로 제공하며, 관람객들은 현장 태블릿 등 록을 통해 공연 다시보기 영상과 만족도 조사 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